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①

오죽(烏竹)의 비밀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낙산사의 창건설화를 반영하는 대부분의 고려불화에 나오는 대나무의 색채는 청죽(靑竹)이 아닌 검푸른 오죽(烏竹)이다.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에는 신라시대에 의상 대사가 창건한 낙산사 창건설화와 관련된 많은 상징과 은유들이 아름답게 도색되었다. 신라의 미륵보살반가사유상처럼 반가좌를 하고, 거친 바위 위에 앉아, 땅사로 된 아름다운 통견(通絹)의 의상을 입고, 대개는 보는 이의 방향에서 좌측 하단의 선재동자를 바라보는 가운데, 좌측중단의 돌은 바위에는 유리대접에 담긴 정병(淨瓶)에 버드나무 가지가 꽃혀있고, 금빛으로 빛나는 광배(光背)뒤로 한 쌍(두 그루)의 대나무가 서있다.

〈삼국유사〉 낙산이대성(洛山二大聖)조(條)에 전하는 낙산사 창건담은 이러하다.

“예전에 의상 법사가 당나라에서 공부한 뒤 돌아왔을 때의 일이다. 대비진신(大悲眞身, 관세음보살)이 이 해변의 굴속에 계시기 때문에 낙산(洛山)이라 부른다는 말을 들었다. 대개 서역에 보타락가산이 있으므로, 이를 빌려서 이름 지은 것이다. 의상 대사는 관음보살의 진용(眞容)을 보였는데 말씀하시기를, ‘이 자리 위의 꼭대기에 대나무 한 쌍이 돌아날 것이다. 그 곳에 불전(佛殿)을 짓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고 했다. 법사가 그 말을 듣고 굴에서 나오니 과연 땅에서 대나무가 솟아났다.”

몇 년 전 강릉시에서 특화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오죽현의 오죽(烏竹)분체 2000여분을 청와대 조경수로 식재했다. 오죽은 일본에

서는 흑죽(黑竹), 중국에서는 자죽(紫竹)이라고도 하며, 중국이 원산지이다. 크기는 80~150cm 가 넘는 것도 있으며, 지름은 4mm에서 5cm가 넘는 것도 있다. 성장기간은 1년인데 녹색으로 자라다가 해를 더할수록 검은 색의 진하기와 선명도가 더해지고 단단하고 윤기가 많아진다.

재밌는 것은 낙산사의 창건설화를 반영하는 대부분의 고려불화에 나오는 대나무의 색채이다. 대부분의 미술사가들이 말하는 청죽(靑竹)이 아니라, 검푸른 오죽(烏竹)의 색깔인 것이다. 한·중·일 동양 삼국 중에서 최초로 창건된 관음성지인 낙산사와 두 번째로 창건된 중국 절강성 영파시 동해 바다에 위치한 섬 속의 보타산 보제사는 둘 다 오죽의 산지이다. 보타산 보제사의 불공거관음전이 있는 산문의 이름은 ‘보타자죽림’ 즉 보타산의 오죽의 숲이라는 뜻이다. 또 이곳은 신라시대 당시에 장보고(張保皋)에 의한 한반도와의 무역이 활발하던 곳이다. 그리하여 신라시대에 옮겨진 오죽은 낙산사를 중심으로 강원도 일대에 퍼지고, 고려불화에 그려지고, 강릉의 오죽현(조선시대 문신이었던 최치운(崔致雲; 1390~1440)에 의해 지어지고, 후일 울곡의 사촌인 권처균(權處均)의 호에서 이름 붙여진다)에 식재되어 오늘 날 까지 이어지는 것이라 추측된다.

최근에 일랑 이종상 화백의 그림으로 5만원권 지폐에 되살아나 많은 사람들의 애지중지함을 받는 신사임당은 초충도뿐만 아니라 산수화에도 일가를 이루었다고 한다. 울곡(栗谷)의 학통을 이어 기호학파(畿湖學派)의 주류를 이룬 성리학자이자 노론의 영수였던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신사임당의 그림들에 발문(跋文)을 붙인 적이 여러 번 있다. 그는 그녀가 남긴 산수화 중 산 속의 절을 찾아가는 재가신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은 대유학자인 울곡의 어머니가 그린 그림을 그릴 리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가 다녔던 절은 강릉을 대표하는 문장가인 초당(草堂)의 교산(蛟山) 허균(許筠)이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3년간 머물렀던 낙산사가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동화사 포교국장

지철 스님은...

199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시립관광호텔경영대학 호텔경영학과 졸업. 2004년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2004년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과정 1학기 수료. 낙산사 교무국장, 해인사 상임포교사를 거쳐 현재 동화사에서 포교국장을 맡고 있다.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70 통도사의 봄



서운암에서 된장 한 통 사두고 내려오는 길이였다. 양산 통도사. 도랑엔 눈부신 햇살이 넘치고 포근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아득한 태양의 끝에서 새싹들은 돋아나기 시작했고, 꽃잎만한 입으로 외치는 산새들의 지저귀미 연둛빛 숲을 흔들었다. 23.5도의 자전축이 만들어낸 통도사의 4월은 그렇게 포근하고 눈부셨다.

걸어야 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그 길을 걸어야 했다. 누군가는 새들이 흠뻑 들어 놓은 연둛빛 숲속을 걸어야 했다. 겨울에 써놓은 시를 덮고 새싹들이 움트는 오솔길을 걸어야 했다. 걷는 동안의 일들을 사랑해야 했으며 걷는 동안의 생각들을 소중히 간직해야 했다. 자연이 주는 사색의 기회였다. 사색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

갔던 소로우는 “내가 숲으로 들어간 것은 삶을 나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기 위함이였다. 다시 말해 오직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만을 마주하면서, 삶이 가르쳐 주는 것들을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고 싶어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을 때,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깨닫고 싶었기 때문이다”고 했다.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감상 55 조전 보우 스님의 ‘경중사미구계(敬宗沙彌求偈)’

돌아와 인간세상 좁다 멋대로 비웃노니

既作空門大瘦生 (기작공문대수생)
義而寧死不徒生 (의이영사불도생)
尋常動作師賢聖 (심상동작사현성)
莫向蜚蜚負一生 (막향지지부일생)

이미 출가하였으니 크게 앓는 삶이라 의로움에 차라리 죽을지언정 헛되게 살지 말라 평범한 행동도 현성을 본받을 것이요 어리석음을 따라 한 생을 지버리지 말라

허응보우(虛應普雨; 15(?)~1565)스님은 명종대 봉은사(奉恩寺) 주지와 선종판사(禪宗判事)로 임명되어 거쳐 가던 조선불교계의 전면에 선 교양종 복된, 승과제도 실시 등 범등(法燈)을 이어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스님은 원관(圓觀), 일정(一正) 등의 논리로 모든 것을 하나로 융섭하고 피차를 나누지 않는 선교·유불일치를 주장했다. 이 시는 당시 불교계의 선봉에 섰던 선사로서 후학에게 출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준다. 스님은 출가를 ‘크게 앓는 삶’이라 했다. 크게 앓아야 큰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수생(大瘦生)’은 하찮은 일상사의 고민에 허덕이지 말고 일대사 인연을 궁구하라는 주장자(拄杖子)이기도 한 것이다. 그것이 곧 의로운 삶이며 출가의 목적인 것이다. 보우 스님은 무명에서 비롯되는 단속되지 않은 방만한 마음에 끄달려 세월을 허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스님은 일상의 평범한 기거동작에서도 현성을 본받을 것을 제시하였다.

보우 스님은 이 시의 윤(韻)으로 ‘생(生) 자를 반복적으로 사용, 초심자에게 요구되는 삶을 확고하고 간명하게 전달하였고 출가자가 지향하는 열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임을 강조했다.

불문(佛門)에서는 선지식 만나는 것의 어려움을 하늘에서 한 개의 겨자씨가 떨어져 이 세계의 바늘 끝에 꽂히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눈 밝은 스승과 정법, 그리고 나의 정견(正見)을 인연으로 한, 목숨 바친 구도 열이 있다면 두두물 물이 모두 현성(賢聖)이 될 것이요, 깨달음은 바로 이생(此生)에서 실현 될 것이다. 이것이 스님이 남긴 사자후이다.



원법 스님(성균관대 문학박사)

Advertisement for a book titled '신묘부주밀법총해' (Shinmyobujumilbeopchonghae) by Baekcho Sunim.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book cover and a starburst graphic with the text '화제의 신간' (Hot new release). The main title is '신묘부주밀법총해' and the subtitle is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The author is identified as '著者 白超 백초스님'. The publisher is '금강주술방편연구회' (Gyeonggang Jusul Bangpyeon Yeonguhui). The ad also includes a quote: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This is not an ordinary talisman book! It is a secret method that has been passed down orally since ancient times, which no one else knows. We have explained the methods of talisman and talisman in detail.)